

發刊辭

葛梅谷(谷) 崔氏는 崔世珍始祖로 하며 本貫은 槐山이며 派는 文公派에 屬하였으며 字는 公瑞였으며 燕山君九年(一五〇二) 文科에 及第하였습니 다.

李朝中宗二十八年(一四四六) 우리의 말을 表記할 文字와 한글을 創制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一五二七年 훈몽자회(訓蒙字會)를 完成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實用漢字音으로 字母音의 配列順序가 잘 되었다는 것을 世宗大王으로 부터 尊稱呼格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國語學發展의 業績을 寄與하였으며 當時에는 世珍할아버지께서 生活與件이 매우 困難을 겪은 탓으로 社會的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功績을 別로 認識치 못하고 있으며 많은 事實입니다.

우리 後孫은 始祖할아버지의 業績을 正確히 알아야 하며 李朝當時에 어떤 小冊들을 刊行되었 으며 官職名과 享年 그리고 墓所位置等を 本論에 記錄되었으며 追後補完할 수 있는 歷史를 蒐集키 위하여 多量으로 鞭撻을 期待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諱世珍 할아버지의 몇世孫이라고 밝혀 自己를 소개할 수 있는 예의와 道理를 갖추어 業績을 길이 알리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누구나 自己집안에 내력(內歷)과 祖上의 活動相等에 대하여 정확히 많이 認知하고 있어야 하고 親族들과 相互부동고 和睦하게 지내면서 祖上들의 墓所保存管理에 萬全을 期하여야 한다 는 것은 法을 앞서는 道德律이며 美風良俗이라고 믿어왔었습니다. 이와 같은 道德律은 오늘날날에 있어서도 普編的으로 妥當하며 따라서 어떤 人間에게도 마땅히 持續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所謂開化期(百餘年前)에 접어들면서 우리 는(특히 日本植民地統治下에 있을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아름다운 心情은 徐

徐히 무너지기 始作하였고 近者에 와서는 實行하기 더욱 더 어려운 與件과 환경속에 우리는 빠져 들어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過去 우리의 大家族制度에서 온 폐습에서도 기인되었지만 開化期特徵中の 하나인 身分(兩班、常民、賤民) 中心의 傳統社會의 붕괴현상 우리의 역사를 埋沒 또는 畏曲하여 植民統治를 強化하려고 한 日本人의 野慾과 술책 그리고 海방以後 民主化 西歐化 物결에서 오도된 自己現象(우리의 것은 좋지 않고 外來文物은 좋다고 生覺하는) 近來에 추진되고 있는 產業化 과정에서 과생되고 있는 人口의 移動및 핵가족화 현상등에 서 우리는 原因을 찾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先祖를 崇慕하고 親族間의 和睦을 돈독히 하며 相扶相助 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호의 異議가 없다고 믿는 것이다. 外國學者들도 우리나라의 美風良俗 이야말로 그들의 科學技術文明에서 오는 否定的現象들을 극복하는데 效果的인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先祖들을 찬양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말한바와 같이 諱世珍 할아버지의 第 몇世孫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도 틀릴바 없으며 資料가 거의 因滅되고 또 傳해오고 있는 얘기들마저 살아져서 오늘날 우리들 後孫들께서는 무례(無禮)스러운 가운데 애를 태우게 해주고 있는 實情입니다. 果然 葛梅골(谷) 崔氏門中은 언제어는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여 맨처음 葛梅골(谷)에 오시게 되었으며 또 그분들께서는 어떠한 活動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墓所는 지금 보존되어 있는지 우리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등 물음을 할 수 없는 南北이 가로막혀 心嘆하고 우울한 마음뿐이며 南韓에 생존친을 둔 親族들은 恒常 想起하여 先祖들께 고마움을 다시 한번 아니느낄수 없습니다.

本譜의 순서는 발간사 및 子孫錄順으로 엮었으며 갈매골 崔門中의 集姓村으로 수호(守護)되었으며 핵심人物이라고 믿는 高麗三朝 平章事 諱沖 할아버지와 諡莊景公平章事 諱思詮 할아버지를 비롯하여 父 潑 子 世珍 이분들의 活躍相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하며 結論을 有道하도록 하였

아니다。골으로 우리 葛梅골(谷) 崔氏親族 여러분의 一讀又 一을 敢히 勸하는 바입니다。 書

西紀一九九一年六月三十日

十七世孫 基昊 書

序文

우리 갈매골은 三百五拾余年前부터 崔氏一門이 자리잡고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生活의 터전으로 온 集村이다.

우리나라에서 一族一門이 한 村落을 이루고 있는 事例는 많이 있으나 그期間이 三百五拾余年을 넘는 곳은 흔히 있을 것으로 믿는다. 오늘의 우리들 後孫들로서는 이렇게 긴 세월동안 갈매골 中心으로 하여 많은 子孫들을 길러주신 祖上들에게 대하여 無限한 感謝의 마음을 떨칠수가 없다.

이에 우리는 祖上들을 向한 崇慕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야 할 것임을 말할것도 없거니와 아울러 그분들의 걸어오신 발자취를 알아보고 싶은 간절한 所望을 버릴수도 없다. 이와 같은 우리의 所望은 우리 自身들을 美化하거나 自尊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後孫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倫理的責任의 하나인 것이다.

또한 우리의 行列은 諱溫字를 基準으로 하여 拾七世 基字以後 代代孫孫의 墓所가 薄薄谷先山으로 保存되어 오고 있음은 갈매골 崔氏家門이 崇祖睦族하는 強烈한 精神과 이들의 結束이 지속되어온 表徵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우리 후손들은 이를 깊이 깨달아 더욱 분발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親族共同體의 意識과 함께 그 責任感을 한층더 가다듬어야 하겠다. 三百五拾여년의 歷史는 우리나라 李朝五百十九年 歷史에 切半의 넘는 긴 세월이다. 우리 祖上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걸쳐 政變과 士福黨爭勢道政治 그리고 民亂等의 政治的 社會的 變動의 소용들이와 천재지변을 당해오면서 精神的 物質的 生活資產을 축적유지(蓄積維持)하여 子孫을 번성시켜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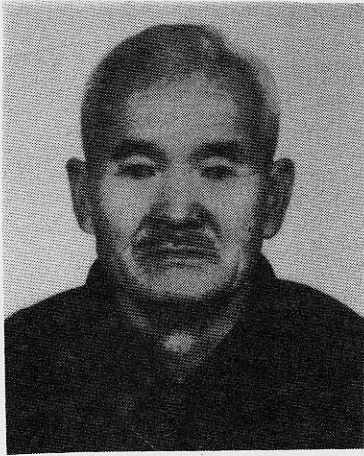
이와 같은 우리 祖上들의 긴 生活史의 해아릴 수 없는 가지가지의 애환과 고난들이 點綴되어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因境을 극복해 낼수 있는 강렬한 힘과 意志가 間斷없이

發揮되어 왔을것임을 우리는 굳게 믿어 주저하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이 강렬한 우리 祖上의 힘과 意志가 果然 어디서 緣由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進展되어 왔는가를 究明함으로 써 오늘에 살고있는 우리의 根本과 傳統으로 確實하게 알고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後孫들에게 즐기찬 번영과 幸福이 恒常 같이 잇기를 祈願하여 마지 않는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토록 끈질긴 우리 祖上의 生存能力은 그들의 지혜와 結束에 의한 勤勞에서 일어나온 것임을 우리는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李朝社會의 前近代的 身分的特性을 考慮해 볼때 우리 祖上 中 어느분에 의해서 그와 같은 生存生活의 基盤이 구축되었는지를 照明해 보아야 할 必要를 우리는 또한 느끼지 않을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밝히는데 있어서 뼈놓을 수 없는 基本資料는 現存하는 우리의 家乘譜뿐이며 祖上들의 歷史는 公式、非公式 傳來의 기록들과 나아가 口口傳承되는 얘기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 家乘譜를 于先基本으로 하고 이와 關連되는 公式文籍인 朴性鳳 韓國史교수 慶熙大南廣祐 文學博士 교수님의 李朝人物에 記錄을 살려 거기에서 얻어지는 確證을提示하면서 記述해 보고자 한다.

西紀一九九一年三月三十日



十六世孫 炳善 書

始祖(槐山崔氏) 黃海道瑞興郡葛梅谷派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世珍 州見上 三九 子淦 呂 子慶千 정천 子瑄 판 子鎮之 진지 子拭 見下 四三

字公瑞 生戊子 十二月十四日生 忌壬寅二月十日 隆慶丁巳一月五日 仁宗五月十日生 孝宗甲寅登第官 承議郎顯宗辛丑 官至 肅宗己卯五月七日 生 甲戌十月 登第官至京畿都 副應教 父東立之女 墓道下坊元山合 局良坐坤向 見下 出系 四三

配果川李氏副司勇 達之曾列之女也 封貞夫人 弟世寶 配伊川縣監乙亥 除通引儀兼漢城 府叅己卯陞平澤 縣監壬午八月己 亥終享年六十六 葬于果川縣內面 麻叱界先塋後丁 坐癸向

配洪州李氏咸從縣 令熙彬之女 墓黃州高壯山北 村麓午坐之原同 塋 卒 墓 配晉州羅氏 墓黃州高壯山先 塋下丁坐原

子瑋 今 無后 子瑋 필 子望之 지망 子授 見下 入系 四三

配楊州金氏忠老之 女墓細坪於永洞 前良坐原 配遂安李氏 苻之女也

子琛 침

六世 筆灘派 七世 八世 九世 十世 十一世